

취향의 시발점

자연에서 시작된 자연스러운 나의 취향 _한혜진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탓에 지켜야 할 것들은 외면 받은 채 존재하거나 사라진다.

누군가는 무엇을 줍고, 누군가는 버린다.

누군가는 무엇을 고려하고, 누군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잊는다.

위 글의 목적어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는 당신이 어떠한 목적어를 떠올렸는지, 기억하는지, 버렸는지. 궁금하다.

시발점 1

나는 감성적인 성격 탓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정신도 육체도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동네를 벗어나려 했다. 나의 목적지는 휴식.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에 초록색이 많은 부분을 찾았다. 적당한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용건릉`이 눈에 밟혔다. 그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의 무덤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지도의 초록색이 끌렸다.

한참을 조용히 걸었다. 그 공간이 주는 무의식의 위로를 받아 의식이 편안해 졌다. 사람들이 아프면 왜 산으로 가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만 같았다. 용릉과 건릉에서 느껴지는 숭고함. 현재에 보존된 과거의 아름다움,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의 미, 높이가 아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웅장함. 그 날 나의 취향은 확고해 졌다.

시발점 2

나는 개를 키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개를 키우지 않는다. 나는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 이유는 묻지 말자, 크게 자책하고 있으니. <내가 개를 키우지 않는 이유>라는 메모장을 2년 전부터 쓰고 울기를 반복하며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때 내가 책임감을 짊어질 수 있었다면,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는 확고해 졌다.

시발점 3

당신은 '*필 환경'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 난 필 환경 시대를 지향한다.

고구마 발을 만나질 동안 파 본 적이 있는가? / 그래서 지금 내 허리가 안 좋은 것 같다.

김장을 200포기 이상 해 본 적이 있는가? / 200포기 하고나서 먹는 수육은 꿀맛이다.

별뿔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 인생에 딱 한번 본적 있다. 아직은.

반딧불이의 차가운 불빛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가? / 시골에서 2번 본적이 있다. 감동 그 자체다.

반려 동물을 죽음까지 품어 준 적이 있는가? / 있다. 하지만 곁에서 품어주지 못한 죄책감을 잊지 못한다.

닭이 갓 낳은 달걀의 온도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 이다.

아침 이슬에 바짓부리가 젖어본 적이 있는가? / 있다. 가장 좋아하는 날씨다.

시골 개와 목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 면허를 따서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늦었다.

산속에 아지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 물론이다. 어릴 적 그려 놓은 아지트 지도도 있다.

나의 발상과 질문은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나오는듯 하다. 그렇게 느끼며 확고해 졌다.

누군가는 무엇을 줍고, 누군가는 버린다.

누군가는 무엇을 고려하고, 누군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잊는다.

내가 말하는 '누군가'는 과거이다. 나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시간들을 동경한다. 나의 목적어는 지난 과거로부터 외면 받은 채 존재하는 것들을 줍고, 고려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목적어는 그렇게 정해져 갔다.

한국 전통이 주는 멋에 영감을 얻고, 짐승만도 못 한 사람들에게 학대 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며, 점점 삶 깊숙이 침투해 오는 쓰레기 들로부터 나, 즉 자연을 보호하고 싶다. 이러한 나의 취향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나의 과거로부터 온 확고한 취향이다.

동물, 자연, 한국 전통

*반드시 필(必)'과 환경의 합성어. '필수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라는 의미.